

결국 물 건너간 ACL 코리안 시리즈

탈락 리스크 커진 전북-대구
日서 8강 길목 '외나무 헐투'

보수적 방벽으로 이동 피로도 상당할 듯

2022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등 아시아 권역 토너먼트(16강~4강전)는 일본 사이타마에서 진행된다.

AFC는 20일(한국시간) 대회 16강전을 8월 18, 19일, 8강전 2경기와 준결승은 각각 같은 달 22일과 25일 일본에서 단판승부로 치른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K리그1(1부) 전북 현대와 대구FC는 사이타마에서 중립경기 형식으로 대회 8강 진출을 다투게 됐다.

K리그는 전북, 대구 이외에 울산 현대(이상 K리그1), 전남 드래곤즈(K리그2부) 등 4개 팀들이 조별리그에 안착했으나 전북·대구만 16강에 올랐다. 사전에 공지된 대진에 따라 'K리그 팀 킬'이 예고됐다. 나머지 3경기는 빗셀 고베-요코하마 마리노스(이상 일본), 조호루 다를탁집(말레이시아)-우라와 레드(일본), 삿포로 유나이티드(태국)-키치SC(홍콩)전이다.

K리그는 국내 ACL 토너먼트 개최를 적극 검토했다. 상상 이상의 홈 텃세에 혹독한 무더위가 우려되는 동남아시아가 대회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정보에 초비상이 걸렸다. 또 다른 걱정이 있었다. 전북과 대구가 16강 혹은 8강에서 탈락한다면 해당 팀의 연구지에서 잔여 경기를 소화해야 한다는 부담은 존재했다.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분산 개최였다. 16강전은 대구에서 치른 뒤 승리 팀 연구지에서 8강 이후의 대회 개최권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전북도 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채 불발됐다. 대회 기간 대구 홈구장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지역 행사가 잡혀 있었고, 결국 없던 일이 됐다. 대신 일본 내에서도 가장 축구 열기가 뜨거운 우라와 레드의 안방으로 모든 동아시아 클럽들이 이동하게 됐다.

전북-대구전 승자는 딱히 걱정이 없다. 체력적 어려움은 있으나 높이 올라갈수록 팀 사기도 함께 상승한다. 몸을 지배하는 건 정신이다. 문제는 패하는 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보수적인 일본으로 대구도 선수단이 움직이는 작업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이동에만 피로도가 상당하다. 조기 탈락 시 그에 따른 멘탈 회복은 쉽지 않다. 귀국 후 시즌 페이스에 악영향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

K리그의 한 유력 인사는 "다른 곳의 사정은 몰라도 현 시스템에선 분산 개최가 이곳(한국)에선 최선의 방안이었다. ACL 첫 토너먼트 경기서 패할 팀의 연구지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건 우리 정서로는 꽤 잔인한 일"이라며 "탈락 팀의 리스크가 상당히 큰 대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어찌됐든 상황을 바꿀 순 없다. 전북도, 대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야만 하는 아주 절박한 외나무 다리 헐투를 펼쳐야 한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FIFA, 러·우크라 클럽 외인 계약 중단 1년 연장

국제축구연맹(FIFA)은 22일(한국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클럽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선수와 지도자의 계약 임시 중단 규정을 2023년 6월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FIFA는 3월 양국 리그의 외국인 선수와 지도자가 현 소속팀과 계약을 중단하고 타 리그로 이적을 허용하는 특별 규정을 도입했다. 이달 30일로 효력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됐다. 4월 루빈 카잔(러시아)을 떠나 FC서울과 단기 계약을 맺은 황인범의 거취에도 변수가 생겼다. 서울과의 동행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벤투호, WC 파워랭킹 19위... 亞 국가 중 최고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국가대표팀은 21일(한국시간) 미국 매체 CBS가 발표한 2022카타르월드컵 파워랭킹에서 아시아 6개국 중 가장 높은 19위에 자리했다. 일본(25위)~호주(27위)~카타르(28위)~이란(31위)~사우디아라비아(32)가 뒤를 이었다. 같은 H조에 속한 국가 중에서 우루과이가 7위로 가장 높았다. 포르투갈(13위), 가나(16위), 한국 순이었다. 2일 한국과 친선경기를 펼쳤던 브라질은 파워랭킹 1위를 차지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donga.com

전북, 수원삼성 2-1 꺾고 2위 탈환

균형 깬 '한방' 김문환 발끝에서 터졌다

합류 첫째 11번째 경기서 첫 골맛 전북 홈 2번째 승, 2골 이상도 처음 2연승 달리며 선두 울산 추격 고배



K리그1(1부) 전북 현대의 최대 고민 중 하나가 '저조한 홈 승률'이다. '하나원큐 K리그 2022' 16라운드까지 1승 밖에 챙기지 못했다. 나머지 6경기에선 3무 3패로 고개를 숙이며 선두 울산 현대를 추격할 기회를 번번이 잃었다.

이 과정과 맞물린 걱정거리도 있었다. 불붙지 않는 화력이다. 딱 4골을 넣었고, 7실점을 했다. 2골 이상 넣은 홈경기가 전무했다. 원정에서 7승1무1패, 14골·5실점으로 '영원한 우승후보'의 면모를 과시한 사실을 비쳐보면 몹시도 답답했다.

22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 정규리그 17라운드 홈경기는 전북으로선 꼭 잡아야 할 경기였다. 공교롭게도 전북과 수원은 29일 같은 장소에서 '2022 하나원큐 FA컵' 8강전을 치른다. 기선 제압을 위해서라도 많은 득점으로 시원하게 승점 3을 쌓아야 했다. 직전의 16라운드에서 전북은 울산을 적지에서 3-1로 누아체 기대감을 높였다.

전북은 모든 걸 잡았다. 최종 스코어 2-1, 전북의 시즌 첫 멀티골·홈 승리가 모두 이뤄졌다. 스코어 1-1로 팽팽한 후반 26분 국가대표 오른쪽 풀백 김문환이 상대 문전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 미드필더 류재민이 내준 볼을 잡아 침착한 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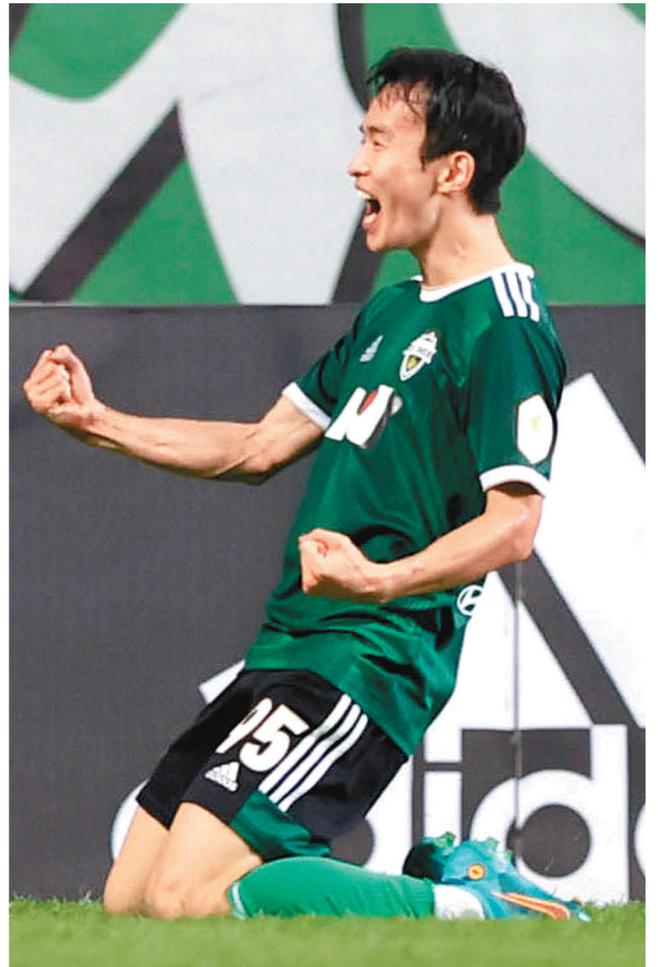
발 땅볼 슈트로 골네트를 흔들었다. 후반 3분 백승호의 프리킥을 받은 주장 홍정호의 헤더 골에 이어 김문환의 시즌 1호 골이 개막전(1라운드) 이후 2번째 홈 승리를 가져왔다.

울산 원정에 이어 2연승을 내달린 전북은 9승4무4패, 승점 31을 쌓으며 제주 유나이티드(승점 29)를 뿌리치고 2위를 탈환했다. "울산 원정에서 이겨 분위기가 살아났다. 기운을 흠에서도 있고 싶다"던 김상식 전북 감독의 바람이 통했다.

전북에 값진 승리를 선물한 김문환은 검증된 카드다. 부산 아이파크에서 뛰다 지난해 1월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LA FC에서 커리어를 쌓은 그는 올 시즌 초반 레이스가 한창인 3월 전북 유니폼을 입었다. 11월 개막할 2022카타르월드컵을 겨냥한 국내 유턴이다. 전북에는 오랜 시간, 태극마크를 달고 대표팀을 위해 헌신한 베테랑 풀백 이용이 있었으니 개의치 않았다. 최대한 많이 뛰며 대표팀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에게 어필할 수 있다면 충분했다.

전북 벤치도 김문환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했다. 대표팀처럼 본 포지션인 오른쪽 풀백으로 나선 이번 수원전은 11번째 리그 경기였다. 포지션은 팀 사정에 따라 다양한 위치를 오갔다. 측면 날개, 스타백의 한 자리까지 묵묵히 제 역할을 했다. 그 덕분에 잠시 멀어진 듯한 대표팀에서 다시 손질됐다. 벤투 감독은 6월 A매치 시리즈에 김문환을 호출해 3경기(브라질·칠레·파라과이전)를 맡겼다. 생애 첫 월드컵 출전 가능성을 다시 열어가고 있다.

전주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전북 김문환이 22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전에서 후반 26분 2-1로 앞서가는 골을 터트린 뒤 포효하고 있다. 입단 후 첫 골을 넣은 김문환의 활약으로 전북은 2연승으로 선두 추격의 고배를 들었다.

임원상 후반 43분 결승골... 울산 '연패는 없다'



울산 임원상(오른쪽)이 2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전에서 후반 43분 역전 결승골을 넣고 이청용과 기뻐하고 있다. 울산은 2-1로 승리, 2위로 올라선 전북과의 승점차를 유지했다.

상임 | 김봉현 기자 won@donga.com

FC서울에 2-1 역전승, 선두 질주
홍명보 감독 후반 교체카드 적중

무실점을 장담했던 홍명보 울산 감독의 표정은 '상암별' 원정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어두워졌다. 전북 현대와 라이벌전 완패 이후 반전을 노린 원정경기에서 일격을 당하며 끌려갔지만, 울산 사전에 연패는 없었다.

울산은 2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하나원큐 K리그 2022' 17라운드 원정경기에서 극적인 2-1 역전승을 거두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승점 39(12승3무2패)로 수원 삼성을 2-1로 꺾고 2위로 올라선 전북(9승4무4패·승점 31)과의 승점차를 유지했다.

사흘 전 전북전에서 1-3으로 완패했던

울산은 매번 우승 레이스에서 역전을 허용했던 트라우마가 반복될까 두려웠다. A매치 휴식기 전까지 5경기 무패(4승1무)를 달궜기에 더욱 당황스러운 결과였다.

홍 감독은 경기 시작에 앞서 "(전북전에서) 어떤 장면에서 실점을 했는지 잘 봐야 한다. 전반적으로 역수비를 했는데 공을 갖고 공격을 하다가 빼앗긴 부분이 컸다"며 "이 부분을 선수들과 잘 공유했다. 반드시 무실점으로 끝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홍 감독의 구상은 경기 시작 직후 망가졌다. 전반 5분 조영욱의 패스를 받은 팔로세비치가 때린 원발 중거리 슈트가 그대로 울산 골문 구석을 꿰뚫었다. 예상보다 이른 실점에 울산 선수들은 허둥했다. 황인범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중원과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핵심 미드필더 원두재가 우측 골반 통증으로 전북전에 결장한 데 이어 서울 원정에도 동행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

위기의 순간 홍 감독의 묘수가 적중했다. 임원상(전반 26분)과 이청용(후반 13분)의 교체 투입이 결정적이었다. 바코의 골(후반 30분)로 1-1이 됐고 후반 43분 역전골이 나왔다.

이청용이 페널티지역으로 파고들며 때린 슈트가 골키퍼에 막혀 흐르자 임원상이 밀어 넣어 골망을 흔들었다. 시즌 8호골을 터트린 임원상은 울산 원정 팬들 앞에서 포효했다.

홍 감독은 경기를 마친 뒤 "연패가 없는 게 울산의 가장 큰 힘이 아닌가 싶다. 선수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임 | 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

임은수 잠재력 폭발 "1부 직행해야죠"

(대전하나)

오랜 부상 이겨낸 '투혼의 아이콘'
라운드별 베스트11 2차레나 꼽혀

"올 시즌 목표는 단연 팀의 승격이다." 재능은 인정받았지만 부상 악영에 시달린 기간이 길었다. 그 사이 정든 소속팀도 떠났지만 주전 자리를 되찾으며 비상하고 있다. K리그2(2부) 대전하나시티즌의 주전 미드필더 임은수(26)의 이야기다.

임은수는 22일까지 올 시즌 리그 14경기에 출전해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 중원

을 이끌고 있다. 라운드별 리그 베스트 11에도 2차례나 뽑혔다. 그의 활약에 힘입어 소속팀 대전하나도 10승7무3패, 승점 37로 리그 2위를 달리며 기업구단 전환 후 첫 K리그1(1부) 승격을 노리고 있다.

잠재력을 발현하고 있지만 그 동안 부침이 길었다. 임은수는 1부 인천 유나이티드 산하 대진고 졸업 후 흥국대를 거쳐 2018년 인천에 입단했다. 데뷔 첫 해 21경기에 출전하며 프로무대에 연착륙하는 듯 했지만 오른쪽 인대 부상에 시달려 2년간 18경기 출전에 그쳤다. 지난 시즌 전반기



임은수

내내 출전하지 못하자 여름이 적시장에서 대전하나 임대 이적을 선택한 뒤 올 시즌 완전 이적했다.

임은수는 "신인 때부터 많은 기회를 받았지만 부상 기간이 길었고 경험도 없었으니 아무생각 없이 열심히 뛰기만 했다"며 "대전하나 이적 후 느낀 점이 많다. 지금까지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들을 적극적으로 리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재민 기자 jmar220@donga.com